

[리뷰]

심신 이원론을 넘어, 데카르트의 『정념론』에 대한 고찰

백 주 진*

『방법서설』, 『성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데카르트는 그가 사망하기 1년 전인 1649년에 『정념론』을 출간한다. 1596년에 태어난 그는 20대 때에는 수학을 물리학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였고, 30대 이후 과학을 더 견고하고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체와 정신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40대까지 형이상학 연구에 매진한다. 마지막으로 40대에 그는 당시에 종교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 네덜란드에 망명 중이었던 한 독일 공국의 공주였던, 엘리자벳을 만나 그녀에게 학문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녀와의 대화는 주로 정신과 신체 사이의 관계 그리고 도덕철학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엘리자벳과의 대화의 결과를 담아낸 책이 바로 『정념론』이다.¹⁾

정념의 문제는 그 당시 새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정념의 문제를 다루어왔다. 가령,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수사학』에서 정념들의 종류에 대해서 깊이 논의하였다. 그러나 데카르

* 단국대학교 연구교수, ingenium@dankook.ac.kr

1) 이 서평에서는 주로 김선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데카르트, 『정념론』, 문예출판사, 2013을 이용하였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정념론』 번역서에는 소두영 선생님의 것이 있다. (『방법서설/성찰/철학의 원리/세계론/정념론/정신지도를 위한 규칙』, 소두영 옮김, 동서문화사, 2016). 불어 원전은 Descartes, *Les Passions de l'Âme*, 편집자 Geneviève Rodis-Lewis, Vrin, 2010을 이용하였다.

트는 <『정념론』에 관한 두 번째 편지에 대한 답변>에서 자신은 『정념론』에서 정념들을 “연설가” 또는 “도덕 철학자”로서가 아니라 “자연학자”로서 설명하려 하였다고 말하는데, 그는 감정이 발생하는 생리학적 기제를 자세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연설가 또는 도덕 철학자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데카르트의 자연학은 단순히 오늘날의 생물학 또는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자연학은 물체와 정신의 구별, 즉 심신 이원론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 자연학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데카르트가 『정념론』에서 정념들을 자연학자로서 다룬다고 할 때, 그는 정념을 생리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의 관점에서 역시 설명한다.

그렇다면 데카르트의 심신 이원론이란 무엇인가? 심신 이원론은 정신과 물체가 서로 다르다는 주장을 넘어 정신은 물체 없이 존재할 수 있고, 물체는 정신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여기서 물체는 삼차원 공간을 점유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기하학적이고 기계적인 법칙들의 지배를 받는다는 사실 외에 다른 어떤 특징도 가지지 않는다. 반면, 정신은 삼차원적 공간을 점유하지 않으며, 기계적이고 기하학적인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 순수 의식이다. 그렇지만 순수 의식은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들을 지니는데, 예를 들어 논리규칙들이 순수 의식 고유의 법칙들이라 할 만하다. 그의 철학은 심신 이원론을 바탕으로 수학을 자연학 연구를 위한 일반적인 방법으로 승격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물질로 환원되지 않는 의식의 고유한 구조와 형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심신 이원론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정신과 신체의 통일이라는 아주 일상적인 체험이 극도로 낮설게 된다는 것이었다. 데카르트는 심신 이원론에 대해 설명할 때, 언제나 심신이원론에도 불구하고 정신과 신체는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누차 말한다. 그렇지만 데카르트는 이 두 사실이 어떻게 양립가능한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았고, 엘리자벳 공주가 데카르트에게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다.

“덧붙여, 데카르트의 이러한 심신 이원론은 순수 의식을 물질적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의지로 특징짓는다는 점에서 도덕적 함의를 지닌다.” 데카르트는 정신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어떤 증명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부정할 수 없는 일차적 사실로서 보았다. 즉, 의식을 가진 나는 나의 내면을 관찰할 때 나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나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존재는 ‘책임’을 갖는 존재 즉 도덕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데카르트가 심신 이원론이라는 바탕 위에서 생각했던 도덕은 어떤 것이었을까? 『정념론』을 제외하고 데카르트의 형이상학만을 본다면, 우리는 쉽게 데카르트가 일종의 윤리적 이기주의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것은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이 외부 세계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유명한 “과장법적 회의”를 통해 외부 세계와 관련해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이 꿈이든지 어떤 악령의 기만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외부 세계 전체의 존재를 회의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회의는 역으로 전혀 회의될 수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것이 저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인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유아론자”라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즉, 그에게 엄밀히 말해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맞다면, 이것의 도덕적 함의는 각자는 오직 자기만을 알 수 있을 뿐 이기에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정념론』은 데카르트 철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이러한 편견들을 벗어나게 해주며, 데카르트의 도덕철학이 나를 향하는 만큼 타인을 향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데카르트의 『정념론』 1부는 심신 이원론, 즉, 정신이 없어도 물체는 있을 수 있고 물체가 없어도 정신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검토하면서 시작한다. 이러한 이원론은 인간 신체를 철저히 기계적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반면 정신은 기계와는 완전 다른 순수 의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정념론』은 더 나아가 17세기 뇌과학과 신경생리학의

융합을 통해 서로 다른 의식과 신체가 어떻게 거의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서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보여준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1부 27항에서 정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정념을 영혼의 지각이나 감정 또는 동요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념은 영혼에 특별히 연관되어 있는데, 동물정기의 운동이 정념을 야기하며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처럼 보인다.”²⁾

여기서 정념은 “영혼에 특별히 연관되”는 것으로서 정의되는데, 이는 정념이 감각과 같이 나의 신체의 한 부분과 관련되는 지각이 아니라 나의 신체 전체와 관련되는 지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왜냐하면 여기서 영혼은 신체 전체와 하나를 이루는 한에서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는 손가락이 아프다고 말하지만, 손가락이 슬프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나 전체 또는 나의 영혼이 슬픈 것이다. 다음으로 데카르트는 정념을 “동물정기의 어떤 운동에 의해 야기되며, 유지되고, 강화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데카르트는 “동물정기”라는 말을 통해 정념의 신경생리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 동물정기는 신체의 혈관과 신경 안에서 흐르는 혈액의 아주 작은 입자들로서 몸속의 다양한 근육을 팽창하게 하고, 신체 기관들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한다. 신체의 각 부분은 동물정기를 통해 뇌에 영향을 주고, 뇌는 동물정기들을 통해 신체에 작용을 가한다. 데카르트는 다음으로 동물정기가 정념을 “유지하고 강화한다”고 말한다. 이는 정념이 지각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음을 말한다. 정념은 우리 몸에 이롭고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고, 그것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이다. 비록 정신과 물체가 구별되지만, 정신과 물체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활동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데카르트는 정신이 신체를 조정하는 방식은, 선원이 배를 조종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다.

2) 『정념론』, 김선영 옮김, 문예출판사(2013), p.42(필자 수정)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심신 이원론이 가정하는 정신은 철저하게 자유로운 정신이다. 정신을 따로 떼어 본다면 그의 자유는 물리적 법칙들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은 자신이 신체와 하나를 이루는 한에서,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물질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정념론』은 정념들의 사용이라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정념들을 분류하고 검토한다. 『정념론』 2부는 가설의 자격으로 6개의 기초 정념들을 제시한다. 데카르트는 『정념론』 안에서 이러한 6개의 기초 정념으로부터 35개의 정념을 연역하지만, 그는 무한정한 수의 정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가 제시하는 여섯 개의 기초적 정념에는 경이, 사랑, 미움, 기쁨, 슬픔, 욕망 등 여섯 가지가 있다. 우선 이 정념들은 윤리학 이전에 인간의 일반적인 정서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 데카르트는 이 기초적 정념들 사이에 ‘순서’를 설정하는데, 경이가 처음으로 온다. 경이는 인식과 밀접히 관련된 정념으로서, 우리가 낯설거나 새로운 것을 볼 때 갖게 되는 정념이다. 경이는 호기심의 바탕인데, 이 호기심으로 우리는 탐구를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사랑을,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 미움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좋은 것을 갖게 되면 기쁨을, 그것을 가질 수 없다면 슬픔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으로 욕망이 있는데, 욕망만이 실제 행동을 촉발하는 정념이다. 즉, 데카르트가 보기에 우리의 정서적 삶은 경이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정념들을 지나, 욕망으로 수렴하고 그로부터 행동이 된다. 인간의 정서적 삶은 행동을 준비하는 여러 기초정념들의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무대인 것이다. 여기서 경이와 욕망이 특별히 윤리적 가치를 지니는데, 이는 한편으로 “경이”로부터 데카르트 덕 윤리의 핵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대함”이 나오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 “욕망”으로부터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다. 욕망으로부터 행동이 나오기에, 행동에 앞서 데카르트는 우리의 욕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내가 욕망하는 것이 나의 자유의지의 실현이자, 타인의 자유의지의 공

정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정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정념론』 3부에서 더 깊이 논의된다. 데카르트는 정념의 지나침에서 오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르치는데, 이 방법들은 모두 “관대함(générosité)”이라는 덕으로 수렴된다. 3부는 관대함을 본격적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정념들의 도덕적 사용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관대함은 기초 정념 중의 첫 번째 것인 경이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것인데, 경이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능력을 향할 때 관대함의 정념이 생겨나는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이 자유의지는 데카르트에게 의식에 주어진 사실로서, 어떤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능력과 분리될 수 없는데, 일종의 경이로서의 관대함은 이러한 능력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대함은 데카르트 윤리학을 이기주의라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관대함은 나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식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자유의지에 대한 의식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자유로운 존재들 사이의 평등이 데카르트 윤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데카르트는 군주의 특권을 인정하고, 역할에 따른 서열을 인정한다. 그러나 사회의 위계 질서는 평등한 존재들 사이의 상호 인정을 앞서서는 안 되고, 그러한 상호 인정에 바탕을 두어야만 한다는 것이 데카르트의 생각이었다. 데카르트 윤리학에서 상호 인정의 중요성은 관대함이 선한 겸손과 분리될 수 없고, 오만과 대립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선함 겸손은 각자가 자신도 다른 사람들만큼이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미 많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선한 일을 선택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각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정념이다. 그리고 오만이 정당한 근거 없이 자신을 타인보다 높게 생각하게 하는 정념이라면, 관대함은 오직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성립하는 자기 존중감이다. 관대함은 이렇듯 데카르트의 윤리학이 윤리적 이기주의를 넘어서게 하고, 심신 이원론과 심신 통일체 이론이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는 지점을 보여준다.

오늘날 뇌신경 생리학의 급속한 발달로 정신은 한갓 뇌의 전기화학적 기계라는 입장이 지지받고 있다. 데카르트의 『정념론』은 과학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에게 물체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성을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준다.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에서 우리는 정신이 물체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그것과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다. 데카르트 『정념론』을 읽는 것은 이렇듯 데카르트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감정교육’을 통해서 자유로운 주체간의 상호인정 체재를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내에 출판된 번역서에 대해서 소개하겠다. 현재 김선영 선생님과 소두영 선생님의 번역이 나와있는데, 모두 좋은 번역이다. 특히, 프랑스 유학을 갔다오신 김선영 선생님의 번역은 한국 데카르트 연구에서 중요한 성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평자는 김선영 선생님의 번역이 더 전문적이고 학술적이라고 평가한다. 그렇지만 소두영 선생님 역시 데카르트의 문장을 정성스럽게 번역하셨다. 두 번역에서 살짝 아쉬운 점은 17세기 불어의 특성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때로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jalousie*와 같은 경우 17세기에는 질투 외에 집착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그러한 점이 두 판본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